

16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

열왕기하 25:1~17, 역대하 36:11~21, 예레미야 39:1~10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유다의 왕과 방백들과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백성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이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과 방백들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며,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여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성경 암송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9)

시드기아가 왕이 된 지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 주위에 ¹⁾토성을 쌓고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포위된 성안의 사람들은 거의 2년 동안 간헐 심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시드기아 왕은 군사들과 함께 성벽을 뚫고 도망하였지만 곧 잡히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아의 눈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모든 유다의 귀족들도 죽였습니다.

또 시드기아의 눈을 뽑고 시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안의 집들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었으며 어린아이와 노인을 가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또 하나님 성전의 귀한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 노예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¹⁾토성: 성 둘레에 흙으로 쌓아올린 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유다의 멸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유다 백성은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요? 알맞은 답을 찾아보세요. ()

① 우리랑 관계없어!
우리는 계속 이대로 지내지 뭐!



③ 이스라엘은 힘이 약해서
멸망한 거야! 힘을 길러야지!



② 저들은 바알을 잘 섬기지 않아서
멸망한 거야. 바알을 잘 섬겨야지!



④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계속하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짓는 유다의 백성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9)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비웃고 조롱한 유다 사람들은 결국 비참하게 멸망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똑같은 잘못을 하지 맙시다



다음 이야기를 읽고 물음에 대답해 보세요.

재진이는 형과 같이 집에서 TV를 보다가 TV에서 광고하던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졌습니다. 형은 재진이에게 말하지 말라며 엄마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피자를 사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어떻게 아셨는지 화가 나서서 형을 혼내었습니다. 형은 엉덩이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런 짓 하면
그때는 정말 혼날 줄 알아!



얼마 후, 재진이는 친구들과 같이 집에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엄마가 잠시 밖에 나가고 없어서 재진이는 엄마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들어오시는 바람에 들켜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재진이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서 써 보세요.



엄마는...



여러분은 재진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11)



예 화



경고를 무시한 사람

어느 지역에 그곳에서 제일 잘 달리고 골프도 잘 치고 사업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염입니다. 과로하지 말고 사업도 좀 쉬면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의사의 진단을 무시하고 5년을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이제 치료하기엔 때가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운동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로부터 26일 만에 그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진단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고쳐야 합니다.

부모님난

선생님난